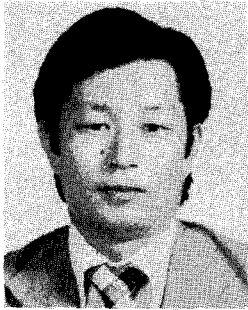


및 닭고기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도 같이 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강 석 진

(과학축산 전문)

**양**계산물의 가격안정! 양계가 하나의 산업이 된 이래 10수년전부터 있어온 절실한 바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절에 따라 혹은 수급에 따라 그 진폭은 가히 천정과 바닥을 오르내린 때가 비일비재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동안 여러가지 요인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양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성장했으며, 2~3년전까지만해도 국내 축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점 밀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줄어드는 사람들은 돼지나 소를 키우고 연약하게 끌리는 사람들이 양계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게다가 돼지나 쇠고기·우유의 소비신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비해 닭고기·계란의 소비증가가 느린 것을 두고 계란의 경우 이제 소비가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양계인까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서서히 식생활양식이 바뀌어가고 있으므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도는 느릴지 모르겠으나 양계산물의 필요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값싸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양계업이 위축되어서도 안 되겠으며, 계속해서 산물의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육자가 곤혹을 겪으며 수동적이기만 하여 생산기반이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기에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해 본다.

우선 생산자들이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뭉쳐서 용기있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현재 양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규모의 대소를 막론

표 1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

	한 국		일 본	미 국
	82 년	87 년	82 년	82 년
계란	115 개	123 개	14.7kg (약 290개)	약 310개*
우유	15.07 kg	18.50 kg	64.4 kg	262.8kg
가금육	2.52	2.78	10.9	29.2
우육	2.71	2.93	5.5	48.1
돈육	6.04	6.71	13.9	28.1

\*미국의 연간 계란 소모량 약 673억개.

돈육, 우육: 한국은 정육, 미국 일본은 지육 기준임.

하고 전업양계인이 대부분이며, 거의가 오랜 기간동안 더러는 종을 때도 있었으나 많은 고초를 겪어온 사람들이다. 고난중에는 자본, 사양관리 등 경영내적인 면도 많았으나 경영외적인 면으로 인한 고난을 많이 받아 왔기때문에 대개의 양계인들은 투쟁하여 설자리를 찾기보다는 그저 열심히 일할 뿐이라는 생각을 갖게된 것이 아닌가도 싶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여 국민들에게 고급의 식품을 값싸게 공급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한데 뭉치는 용기를 가져야 하겠다. 뭉친 힘으로 끈기있게 대처한다면 일간지의 대수롭지 않은 기사로 전체 양계인이 흔들리는 곤혹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생산물의 소비도 계속 늘릴수 있게되어 가격의 안정을 이룰수 있다고 본다. 콜레스테롤 문제만 해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1인당 연간 300개가 넘게 먹고 있는 미국, 일

본에서 혹 하루에 여러개씩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23개로 아직은 더 많이 먹어야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된다 하겠다.

둘째로 일반 국민의 기호에 맞도록 가공이 되어 소비를 증대시켜야 하겠다.

계란의 경우 여러가지 가공방법이 있겠으나, 편리하게 마실수 있기때문에 우유나 요구르트 등을 아무데서나 잘 사서 마시듯이 계란을 이용한 음료를 개발한다면 그 자체의 소비가 느는 것 뿐만아니라 계란에 대한 소비촉진효과도 따르게 될 것이다. 물론 계란을 풀어서 며칠간은 보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유통과정 감안)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으나, 계란이 우유에 비해 값싸고 영양가가 높은 것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

(표 2 참조)

표 2 계란과 우유의 영양분 비교

	영 양 분 조 성		단 위 영 양 분 량	
	계란	우유	계란 1개중	우유 180ml중
수 분	65.6%	87.3%		
조단백질	12.1	3.4	7.3g	6.2g
조 지방	10.5	3.7	6.3	6.6
탄수화물	0.9	4.9	0.5	8.9
미량요소	1.1	0.7	0.7	1.3
난 각	9.8	-		
시중가격			80원	180원

※ 계란 1개는 60g 기준.

닭고기의 경우도 저작하는 맛이 좋은 소고기 선호의 경향을 감안하여 좋은 냄새를 가지면서 팍팍하지 않도록 가공이 되어진다면 그 소비는 대단히 많아지리라 본다.

셋째로는 고급식품다운 면모를 갖게 해야 하겠다.

계란의 경우 특히 난각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값싸고 좋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불쾌하여 먹기를 기피하게 된다.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으나 최소한 가게나 가정집에서 소비되는 계란만이라도 깨끗하게 하여 유통되게 한다면 분명 소비가 더 될 것이다.

육계의 경우도 아직은 도계포장육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으며, 도계품도 더러는 핏물이고 인체로 조잡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깨끗하게 도계포장된다면 선호도가 더 높아지리라 본다.

넷째로 유통형태도 재고해보아야 할 것 같다.

계란의 경우 현재는 특·대 중란으로 구분·판매되고 있어 주부들의 특란선호 경향으로 특란에 비해 대란이하의 계란은 비교치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도 같은 값에 다소 크기차이가 있으므로 고르기가 불편하여 무의식중에 계란사기를 귀찮아 할 수도 있다 하겠다. 때문에 깨끗한 포장으로 일정한 무게를 포장해 두어 쉽게 선뜻 살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육계의

경우 통닭뿐만 아니라 부분육을 아무 가게에서나 쉽게 살 수 있게 된다면 전체 소비량은 더 늘어나라 믿는다.

다섯째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어야 하겠다.

이 역시 헌신적으로 협동단결하여 용기있게 대처해야 되겠지만 양계업이 축산업중 3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배려를 받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예를 든다면 소비촉진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가공 저장시설의 지원 혹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예시, 선도 등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합리적인 사양관리 경영으로 생산원가를 낮추어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다.

물론 적자수출이기는 했으나 수년전에 중등으로 계란이 수출된바 있었던 것으로 볼때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리라 본다.

이상 가격이란 생산과 소비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므로 소비증대 방안에 주안을 두어 열거해 보았다.

물론 앞으로 소비가 늘어나

리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양계여건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는 일본이 인구 1억1천만에 닭숫자 2억9천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4천만에 닭숫자 5천만인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다른 축산물의 증가추세에 비해 양계산물의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둔화된 상태이므로 사육자들의 단합된 힘은 물론 유관산업과 행정부처까지 합심하여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증대에 힘써야 하겠다. 이것은 또한 국민건강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라 하겠다.



##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박 규 덕

(동방유랑 사료사업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말은 흔히들 일의 근원을 따지고자 할 때 많이 쓰곤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계산물가격결정의 주도권은 과연 누가 쥐고 있는가? 실제 양축경험이 없는 본인로서는 선뜻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망서려진다.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러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월간양

계 편집부에 감사드리고자 한다. 본인은 이 지면을 통해 축산업계에 몸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니 그보다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가격안정을 바라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다. 축산인, 그들은 바로 생산의 주체이자 곧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 말엔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가 될 것이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계란은 도시생활자중 중류층 이상에서 주요 부식으로 소비될 정도였다. 그러나 생활수준향상